

West Kalimantan

2019년 3월 기도편지

배성현.이산정.지온.승은.승우 가족

**적도의 땅
폰티아낙을
가슴에 품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4~15)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은
인도네시아
서부칼리만탄을
복음화시키는
소중한 씨앗으로
심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이곳 적도의 땅 폰티아낙은 우기를 지나 건기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태양이 더 뜨겁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뜨거운 열기로 인해 숨이 턱턱 막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 적도의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바라보는 기쁨이 크기에 오늘도 더위를 잊고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 나갑니다. 이곳을 위해 늘 간절한 중보기도와 사랑의 후원으로 함께 해 주시는 목사님과 섬기시는 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간 있었던 소식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 갈리마스침례교회 예배당 공사**



공사 자재들



예배당 건축 부지 계속



바닥 기초 공사 (1)



바닥 기초 공사 (2)



바닥 기초 공사 (3)



기둥 및 골조 세우기

e-mail: 0212bae@hanmail.net / 인터넷전화(국가번호와 지역번호 없이): 070-4843-9485

후원계좌: 국민은행 048401-04-128048 (배성현) 우체국 013052-02-169596 (배성현)

배성현.이산정.지온.승은.승우 가족

적도의 땅
폰티아낙을
가슴에 품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4~15)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은
인도네시아
서부칼리만탄을
복음화시키는
소중한 씨앗으로
심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지난 3월 12일에 칼리마스침례교회 예배당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본래 작년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공사를 약속했던 인부들이 세 번이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인부들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러한 중에 신실한 그리스도인 인부들을 만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를 위한 자재들이 들어오고, 기초를 다지는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에는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1년여 동안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여러 장애물들(교회 명의로 부지를 변경하는 과정의 어려움과 공사 인부를 구하는 어려움 등) 때문에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는데,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고 예배당 공사를 위한 첫 삽을 뜨게 되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칼리마스침례교회 예배당 공사를 위해 귀한 건축현금을 보내 주신 불광동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의 희생과 수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공사를 위해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난 3월초부터 출애굽기를 매일 함께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몇 구절이 제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²¹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²⁹마음이 자원하는 남자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출 35:21~29)

“³⁰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³¹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³²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³³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였고 ³⁴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³⁵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베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출 35:30~35)

마음이 감동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의 필요한 자재들을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가져오는 모습처럼, 칼리마스침례교회 예배당 공사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으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막 공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기술자인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막 공사를 위한 지혜와 기술을 넘치도록 부여주셨던 것처럼, 칼리마스침례교회 예배당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인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월경에 완공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좋은 날씨와 환경 가운데 공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도의 땅
폰티아낙을
가슴에 품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4~15)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은
인도네시아
서부칼리만탄을
복음화시키는
소중한 씨앗으로
심겨질 것입니다

*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



지난 3월부터 폰티아낙에서 약 3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빠쥁(Pacong), 농강(Nunggang), 오곷(Ogot) 세 지역을 매달 한 번 정기적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폰티아낙에서 2시간 30분을 달려가면 만나게 되는 까랑안(Karangan) 지역에서 비포장길을 따라 1시간을 더 들어가면 산 속 마을을 만나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무로 이어진 다리를 여러 차례 건너가야 하는데, 다리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차가 아닌 오토바이로 다녀오고 있습니다. 세 곳 모두 목회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인데, 저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는 법인과 연결이 돼서 제가 방문하게 된 곳입니다. 깊은 산 속 골짜기에 생성된 이 마을에는 의외로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곳 젊은이들을 향한 비전을 주셔서, 저는 이 젊은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토바이로 장시간을 다녀와야 하는데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비자 해결

지난번 1월 기도편지를 통해 “2월 17일까지 종교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소식을 올렸었는데,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간절한 중보기도의 응답으로 저희는 2월 16일 토요일에 1년 종교비자를 받고 폰티아낙에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가족의 비자 문제를 위해 날마다 기도로 함께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이 어려움의 고비를 지나 온 뒤 펼쳐질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더 많은 결실들이 맺혀질 것을 기대하며,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적도의 땅을 향한 사랑의 후원과 기도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기쁜 소식들을 날마다 전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날마다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 3월 31일
적도의 땅 폰티아낙에서
배성현 선교사 가족 올림

적도의 땅
폰티아낙을
가슴에 품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4~15)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은
인도네시아
서부칼리만탄을
복음화시키는
중추한 씨앗으로
심겨질 것입니다

* 기도 제목

1. 깔리마스침례교회 예배당 공사를 위해서

- (1) 좋은 날씨를 주시도록
- (2) 공사 인부들이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 (3) 깔리마스침례교회 성도들이 예배당 공사를 통해 믿음이 더 자라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갖고 전도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2. 뜨른땅침례교회

- (1)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유치원 사역을 통해 영혼들이 교회에 더해지도록
- (2) 유치원 사역을 위한 물질적 필요들이 잘 채워지도록

3. 임마누엘침례교회를 위해서

- (1)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현지목회자가 연결되도록
- (2) 예배당 및 기숙사를 위한 상가 매입 재정들이 채워지도록
- (3)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 (4) 각 부서 모임이 활발해지고, 새로운 영혼들이 더해지도록

4. 빠종, 능강, 오곳 사역을 위해서

- (1) 오가는 길의 안전을 위해서
- (2) 그곳 젊은이들을 잘 훈련시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5. 사역의 확장과 함께 생겨나는 많은 물질적 필요들이 잘 채워지고, 후원교회 및 후원자들이 계속 잘 연결될 수 있도록

6. 가족을 위해서

- (1) 아이들(지온,승은,승우)이 학업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 (2) 온 가족이 매일 같은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영적으로 잘 무장될 수 있도록
- (3) 더위에 지치지 않고 건강하도록
- (4) 배성현 선교사의 녹내장이 악화되지 않도록